

## 세종솔로이스츠 강효, 예술감독

美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강효 줄리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 최정상 기량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하여 현악 오케스트라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40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가져왔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 자체기획공연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 단체이며 이외에도 링컨 센터의 엘리스 킬리홀, 런던 카도간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홀, 베이징 NCPA 콘서트홀, 타이완 국립예술극장 등의 국제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스펜 음악제의 상임 실내악단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상주 실내악단으로 활동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세계 각지의 언론과 음악평론가들로부터 ‘보기 드문 응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전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한국계 작곡가 Earl Kim의 작품을 뉴욕과 아스펜 음악제에서 초연했으며 미국의 저명한 말보로 음악제에 <Earl Kim 장학금>을 설립했다. 또한 한국 현대음악의 독보적인 작곡가 강석희에게 <평창의 사계>를 위촉, 강원도에서의 세계 초연을 시작으로 파리 살 가보, 런던 카도간홀, 베이징 중앙세계극원,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연주했다. 세종솔로이스츠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 참가로는 FIFA 총회이벤트 공연,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관 개관기념식’ 연주, 그리고 UN에서 열린 2004년 아테네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뉴욕시 선정 연주자로서 공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와 유럽방송연맹(EBU)은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를 매년 수차례 정기적으로 세계에 방송하고 있는데 美 공영 라디오의 ‘오늘의 연주’ 프로그램에서는 세종솔로이스츠를 ‘2003년 젊은 상임 예술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CNN의 초대로 연주한 2002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및 2003년 추수감사절 특별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되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2003년 KBS 해외동포상\_예술부문, 2008년 제3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 강효, 예술감독

줄리아드 대학과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중인 강효는 지난 30년 동안 연주자, 교육자, 예술감독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거쳤다. 그는 20년 이상 명망 높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의 상임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초연하였고 레온 플라이셔, 피나 카르미렐리, 월터 트램플러, 앙드레 와츠 등과 함께 연주했다.

1994년에는 석좌교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고 1978-2005년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 음악학교, 1994-1998년 일본 나가노 아스펜 음악제에 교수진으로 참여했으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 중국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길 사함과 장영주, 김지연을 비롯한 그의 많은 제자들이 명망 있는 국제 콩쿨에서 우승하고 세계 일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2년 봄 KBS TV는 다큐멘터리 <천재들의 수업-줄리아드 강호 교수>를 제작하여 방영했다. 그는 2003년 10월 한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2003년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받아 본 음악제를 발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제로 자리매김 시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제 5회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태생인 강호는 서울대학교에서 배석빈과 안용구를, 피바디 대학에서 벌세노프스키를, 줄리아드 대학에서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했다.

## 미디어 하이라이트

-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 - CNN, 미국
- “최고 수준의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는 집중된 에너지와 화려한 음색으로 전혀 흠잡을 곳 없는 합일성을 보여주었다.” - 워싱턴 포스트
- “...놀랄만큼 뛰어난 앙상블... 빛나는 명연주였다.” - 더 타임즈, 영국
-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며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는 세련된 앙상블” -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 “세종솔로이스츠는 뛰어난 실력과 낙천적인 이미지 그리고 균형잡힌 연주 스타일로 세계를 매료시킨다.” - 뮤조, 영국
- “확신있는 정확한 연주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구사하는 앙상블의 눈부신 능력이 증명됐다” - 스트라드, 영국
- “세종솔로이스츠는 꿈의 앙상블...” - 조선일보
- “이들의 데뷔는 평론가들에 의해 ‘보기 드문 천상의 소리’라고 칭송받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꿈의 앙상블’이라 불리고 있다. 맑고 날아오르는 듯한 음색은 이러한 찬사가 마땅했음을 들려준다.” - 클래식칼, 미국
- “한 평론가가 세종솔로이스츠를 ‘꿈의 앙상블’이라고 한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다. ...각각의 악장들이 완벽하게 시작되고 끝을 맺었다. 세 번에 걸친 기립박수는 너무나도 당연했다.” - 마샤 와그너, 아일랜드
- “현악사중주의 우아한 섬세함과 대규모 관현악의 힘있는 우렁참을 동시에 갖춘 세종솔로이스츠는 미세한 소리부터 웅장한 소리를 넘나드는 풍부한 음량으로 듣는 이들을 숨죽이게 했다.” - 몽고메리 어드바이저
- “최상의 현악 연주에 대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 선데이 텔레그램
-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다. 음량도 훌륭하지만, 앙상블이 쏟아내는 정밀함 또한 놀랍다. 그야말로 현란하도록 아름다운 현악 연주이다. 나는 한 번도 네 개의 바이올린이 동일한 선율을 그토록 감미롭게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환상적인 연주였다.” - 펜자, 모닝콜

## 세종솔로이스츠, 기금모금 갈라 성황

입력일자: 2010-12-11 (토)

정상급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예술감독 강효)의 기금모금 갈라 콘서트가 지난 9일 카네기홀 쟈켈홀에서 열렸다. TV 저널리스트 폴라 잔이 진행한 이번 연주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대사 30 여명도 관람했다. 바이얼리니스트 조성원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갈라 공연에서 세종과 협연하고 있다



# Haydn • Mendelssohn

Haydn Violin Concertos - No.1, HobVIIa/1; No. 4, HobVIIa/4

Mendelssohn Octet, Op. 20

Sejong Soloists / Gil Shaham *vn*

Canary Classics

---

## Shaham and co bring bustling virtuosity to Mendelssohn's teenage masterpiece

---

Often when listening to Mendelssohn's Octet, I find myself searching for moments that might betray the youthfulness of its creator: Some Prolixity, some passing pomposity, some momentary immaturity or fleeting grandiosity pointing to the fact that the composer was only 16 years old. Needless to say, time and time again I draw a blank, finding it impossible to pinpoint anything that suggests that it's anything less than perfect, one of the true miracles of music. Gil Shaham and the Sejong Soloists - a handpicked ensemble of young musicians - present a driving performance, bustling and forward-moving in the opening *Allegro*, Perhaps a little cosmetic in the *Andante* but ideally airborne and impish in the *Walpurgis-Scherzo*. Shaham is spotlit within the balance, most notably in the first movement, although a better equilibrium is approached thereafter. There are some breathtaking

*pianissimos* and beguiling touches of *portamento* in what is most likeable performance, building cumulatively to a chattering contrapuntal finale that demonstrates these players' admirable abilities individually and in ensemble. I maintain a soft spot for the recording (on period instruments) by Hausmusik (Virgin, 9/90R); This is sweeter, less stately, equally compelling.

The couplings are two of Haydn's three extant violin concertos, also early works, although "early" for Haydn means he was around twice the age of Octet-period Mendelssohn. Shaham's rich violin tone is a boon in these works, making this a viable modern-instrument alternative (with fairly inoffensive harpsichord continuo) to the recent Podger in No. 1 (Channel Classics, 12/09) or the older Standage/Pinnock (Archiv, 5/89) and Wallfisch (Virgin, 11/92R). Stephen Somary's otherwise comprehensive booklet-note goes through all manner of contortions to concoct a link between Haydn's slight concertos and the still remarkable genius of Mendelssohn's teenage masterpiece.



## [컬처 앤 라이프] 살로넨·두다멜·강효

LA 필하모닉은 지난해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프로그램 선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 심사숙고 했다.

우선 LA 필은 16 년을 함께 한 뮤직 디렉터 예사-페카 살로넨의 퇴임전 마지막 해외 순회 무대인데다 새라 장이 함께 해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아무리 훌륭한 곡이라도 오케스트라와 협연자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한 지휘자가 그 곡에 정통하지 않으면 그 연주회는 실패다. 오케스트라가 곡만 선별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를 따로 고용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몇달에 걸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LA 필은 결국 '시벨리우스의 바이얼린 협주곡 D 단조 Op.47'로 결정을 내렸다. 새라 장의 추천도 있었지만 예사-페카 살로넨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가 시벨리우스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핀란드 출생인 예사-페카 살로넨은 1992 년부터 LA 필의 뮤직 디렉터로 활동하며 이곳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다. '핀란드 문화대사'가 바로 그의 별칭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그는 핀란드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연주자들을 초청했으며 또한 성악가들을 불러 미국의 곳곳에서 재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무대를 주선해 주어진 별명이다.

그가 LA 필에 온 이듬해 부터인가 핀란드로 부터 예술제 홍보 메일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앙일보 명성이 유럽에도 알려졌구나' 하며 우쭐한 기분으로 브로셔를 대충 보곤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유럽 중 왜 유독 핀란드에서만 홍보 메일이 오는 걸까?'

그때 언뜻 머리 속에 잡히는 인물이 바로 예사-페카 살로넨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LA 필의 홍보 담당자가 핀란드 예술 단체에 미국 매스컴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은 바로 에사-페카라고 설명해줬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이민자들에게 '애국'이라는 단어는 늘 심약해지는 감회를 준다.

남다르게 모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봉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죄스런 마음이 드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오는 메일은 더욱 꼼꼼히 본다. 에사-페카 살로넨의 애국심에 대한 경의에서다.

그뿐인가. 에사-페카의 후임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보 두다멜 역시 자기 나라 홍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다.

베네수엘라의 음악인들을 미국 무대에 열심히 소개하는 것은 물론 베네수엘라의 성공적 교육제도인 무료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교습을 해주며 음악을 통해 건전하게 청소년기를 보내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다.

이 프로그램은 효용성이 커 유럽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LA 필을 필두로 대다수 주요 오케스트라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베네수엘라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진보된 우수 국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에서 연주회를 가진 줄리아드 출신으로 구성된 세계적 앙상블 '세종 솔로이스츠'의 공연을 보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문화대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단체를 탄생시킨 줄리아드 음대 강효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도 들었다.

청중들은 단체 이름을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게되고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언어인지도 숙지하게 된다.

역사를 통해 음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역사를 전하는 것이다.

예술의 엄청난 힘은 바로 이런 곳에서 느껴진다.

한인 아티스트들이 모두 '강효의 마음'이라면...한국은 도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이나/문화 전문기자



7 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 15 주년 기념 연주를 앞두고 리허설 중인 '세종 솔로이스츠'와 강효 교수. [사진=박종근 기자]

## 유럽 시골까지 '세종'이름 알렸다


창단 15 돌 '세종 솔로이스츠' 이끈 강효 예술감독  
뉴욕 작은 교회서 11명 첫 출발  
빈틈 없고 긴장감 넘치는 연주  
“단원을 뽑는 기준은 오직 실력”

강효(64) 줄리아드 음대 교수는 지난 15년을 “살아남기(survive)”로 표현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줄리아드 음악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임용된 것이 33년 전. 그중에서 '세종 솔로이스츠'의 예술감독을 맡았던 15년은 그에게 가장 도전적인 기간이었다. 강교수의 제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현악기 실내악단의 공식 데뷔는 1995년. 하지만 그는 그보다 1년 전을 “진짜 데뷔”라고 말한다.

“1994년 크리스마스였어요. 뉴욕의 한 작은 교회에 11명의 연주자가 섰죠.” 그는 크고 화려한 공연장 대신, 음향이 좋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말그대로 창단만 했어요. 연주해달라는 공연장도, 함께 무대에 서자는 아티스트도 없었죠.” 그런데 왜 그의 마음은 요동쳤을까. “어찌나 흥분되던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글=김호정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문화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에게 날개 달아주고  
핫! 랭킹 > 싶어”

’세종 솔로이스츠’ 15 주년… 창단자·예술감독 강효 교수  
김성현 기자 (블로그)danp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바이올리니스트 강효 교수는 줄리아드 음대에 이어 지난 2006 년 예일대 교수로도 임용되면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15 년 전 강효 미 줄리아드 음대 교수(바이올린)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다. "젊고 뛰어난 현악 연주자들이 그저 독주(獨奏)만 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실내악을 함께 연주하면 어떨까."

그래서 1995 년 한국 음악가를 주축으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20~30 대 현악 연주자들을 끌어모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실내악단 '세종 솔로이스츠'를 창단하고 예술감독을 맡았다. 그동안 세계 100 개 도시에서 350 여 차례 연주회를 열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 데이비드 찬(Chan)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유수의 오케스트라 악장만 6 명을 배출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김현아(연세대), 비올리스트 김상진(연세대) 리처드 용재 오닐, 첼리스트 송영훈 등 신세대 스타 연주자들이

거쳐 가면서 '인재 양성소' 역할도 톡톡히 했다. 강 교수는 "실내악 앙상블 자체가 함께 연주한다는 뜻이기에 국적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젊은 연주자들이 이 악단을 발판으로 활짝 나래를 펴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강효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힘들었던 유학 생활 때문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서울대 2 학년에 재학하던 1964 년, 서울시향과 협연하기 위해 내한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벌 세놉스키(Senofsky)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 세놉스키는 1955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적인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미국인 최초로 우승한 연주자다.

젊은 대학생 강효의 연주를 들은 세놉스키는 자신이 협연한 출연료를 손에 쥐여주고, 초청장과 미 대사관 신원 보증서까지 써주며 유학을 권유했다. 강 교수는 훗날 스승이 된 세놉스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미국행(行)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2006 년부터 예일대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 강효 교수는 "얼마 전 집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선생님이 써주었던 보증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이국(異國)의 학생에게 아낌없는 배려를 베풀었듯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세종 솔로이스츠가 창단 15 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갖는다. 7 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10 일), 포항 효자아트홀(11 일), 대구문화예술회관(12 일), 김해문화의전당(14 일) 등에서 열린다. 강 교수는 "고국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신청한 뒤 며칠간 기다리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40 여 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만 한국인 학생이 30%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 줄리어드 음대에 이어 2006 년 예일대 교수로도 임용된 바이올리니스트 강효 교수. 그가 5 일 조선일보사에서 유학생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입력 : 2009.03.06 04:05 / 수정 : 2009.03.06 14:5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5/200903050163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5/2009030501634.html)  
(동영상 게재)

등록날짜 2008-07-02

글자크기  |   

## 세종솔로이스츠 연주 HP 광고음악 ‘낙점’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가 휴렛팩커드(HP) 광고음악으로 쓰였다. 1일 세종솔로이스츠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HP의 ‘터치 스마트(Touch Smart) PC’ 광고에 이들이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이 광고는 지휘를 하듯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강 효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와 그의 줄리아드 출신 제자들을 중심으로 1995년 창단된 연주단체로 대관령국제음악제 상주 실내악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기자이름없음

## <<공연리뷰> 세종 솔로이스츠 신년음악회

[연합뉴스 2008-01-23 09:36]

(고양=연합뉴스) 최은규 객원기자 = 환호, 갈채, 열광! 연주는 끝났지만 청중의 박수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독주와 합주의 조화로 이뤄낸 실내악의 힘이며, 21명의 음악가들이 일궈낸 승리였다.

2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신년음악회 무대는 세종 솔로이스츠의 뛰어난 연주로 더욱 빛났다.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내악단이면서도 단원 모두 독주자나 다름없는 이 독특한 음악단체는, 역시나 독특한 신년음악회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대개의 신년음악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빈 필하모닉의 선례에 따라 신년에 어울리는 가볍고 경쾌한 음악으로 구성되기 마련이지만, 세종 솔로이스츠는 여기에 단체의 특성을 가미해 다섯 명의 단원들이 차례로 독주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음악회를 이끌어갔다.

그 때문에 무대 진행이 빠르고 프로그램이 다채로워 신년음악회의 축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세종솔로이스츠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프랭크 황과 에밀리-앤 젠드론이 사라사테의 '나바라'를 함께 연주하며 독주 릴레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스페인의 민속춤의 영감을 받은 이 매혹적인 작품에서 두 대의 바이올린은 화려하고 절묘한 화음을 선보였다.

이어서 올레 아카호시의 협연으로 연주된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에서 독주 첼로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는 아람음악당의 풍부한 잔향에 힘입어 더욱 또렷하고 아름답게 울렸다.

다만 본래 관현악 작품인 이 곡을 현악합주용으로 편곡한 탓에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이 살아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음악회 전반부에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음악인은 역시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었다.

그의 연주로 더욱 유명해진 오펜바흐의 '자클린느의 눈물', 그리고 그 유명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선율은 이제 너무나 귀에 익어 진부한 감도 없지 않지만, 용재 오닐은 특유의 찰진 톤과 풍부한 감수성을 담은 연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후반부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와 독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에 속하지만 교향곡과 같은 규모와 웅장한 악상을 지니고 있어 제대로 연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와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독주자의 화려함을 과시하기보다는 오케스트라 속의 솔로리스트로서 악단과 한 몸을 이루며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다.

그들은 독주자로서 오케스트라를 리드하는 한편, 합주 파트와 독주 파트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탁월한 앙상블 능력을 입증해보였다.

이유라와 용재 오닐은 각기 개성이 강한 음악인이지만 그들의 연주는 음악적으로 상호 보완적이었다. 용재 오닐이 반듯한 보잉과 풍부한 비브라토로 견고한 기초를 다지면, 이유라는 활의 미묘한 속도 변화로 섬세하고 매혹적인 뉘앙스를 만들어내며 비올라와 조화를 이뤘다.

2악장에서는 특히 영적인 분위기를 전해주는 이유라의 독특한 연주가 특별한 감흥을 줬으며, 3악장에서 두 명의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펼쳐 보인 재치 있고 흥미진진한 연주는 청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세종 솔로이스츠가 지휘자도 없이 이토록 정교한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음악이란 본래 여러 성부의 어울림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이토록 뛰어난 음악가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음악의 기본에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herena88@naver.com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magicn/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933920](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933920)



입력 2007. 10. 25 11:25

## 세종솔로이스츠, 반 총장에 문화공헌 감사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로부터 문화공헌 감사패를 받는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오는 12월 16일 뉴욕 카네기 잔철히에서 '80분간의 세계여행'을 주제로 '제8회 기금모금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을 성원해온 반 총장을 문화공헌인으로 추대하고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음악회는 세종솔로이스츠가 거의 매년 열어온 행사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CNN의 유명 앵커인 폴라 잔이 사회를 맡는다.

또 올해 가을학기부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로 임명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이유라(바이올린), 폴 뉴바우어(비올라), 한국계 소프라노 유현아, 줄리아드 현악사중주단 등이 출연해 바흐, 하이든, 엘가, 고든친의 작품과 세계 초연되는 에릭 이와젠의 '희망의 시가' 등을 80분간 들려줄 예정이다.

세종솔로이스츠는 강 효 줄리아드 음대 교수와 그의 줄리아드 출신 제자들을 중심으로 1995년 창단된 실내악단으로, 현재는 한국 등 8개국 출신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 상주악단으로 활동하는 등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이다.

# MUSICAL OPINION

JULY-AUGUST 2007

## Sejong at Cadogan Hall

The 14-piece conductorless string orchestra Sejong, founded in New York by Hyeon Kang, appeared at Cadogan Hall in a remarkable programme on 10 June. They began with a version for Solo Violin and String Orchestra by the Russian composer Leonid Deziarnikov of four Tzings by Annie Parrilla which have been brought together under the title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With witty quotations from Vivaldi's *Four Seasons*, this made a delightful start to the programme, each Parrilla Tzing-Concerto being brilliantly played by four separate Sejong soloists, Frank Huang, Ji In Yang, Emilia-Anne Gendron and Yara Lee.

These mini-concertos were followed by the British Premier of *The Four Seasons of Dyang Gwang* by the South Korean composer Sukbi Kang. The work consisted another *Four Seasons Series of Concertos for Solo Violin*, quite superbly played by Stefan Mileskovich, although the post-modern melodic nature of the work did not quite match the outstanding technical resource which the 73-year-old composer, who was present, brought to his own music.

Finally, Tchaikovsky's *Serenade for String* received an outstandingly fine performance. On this showing, Sejong is, simply, a chamber orchestra of world class, and we must thank the Korean Shinhan Private Bank for bringing these highly gifted musicians to London.

ROBERT MATTHEW-WALKER

1995년 뉴욕에서 결성된 지휘자 없는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가 14 명의 단원을 앞세우고 지난 6월 10일 런던의 카도간 홀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연주했다.

세종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로 막을 열었다. 이 곡은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네 개 탱고를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 (러시아 출신 작곡가)가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것이다. 비발디의 <사계>를 재치있게 차용한 이 작품 연주에서 프랭크 황, 양지인, 에밀리-앤 젠드론, 이유라 등 4 명의 세종 단원들은 각 계절을 눈부시게 소화해냈다.

미니 콘체르토에 이어 한국 작곡가 강석희의 <평창의 사계>가 영국초연되었다.

이 작품 역시 사계를 주제로 한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세종 단원인 스테판 밀렌코비치가 솔로를 맡아 훌륭한 솜씨로 연주했다. 특히 이 곡의 포스트모던한 멜로디는 이날 연주회에 참석한 73세의 작곡가가 창작에 도입한 뛰어난 음악 기법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새롭고 놀라웠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가장 감명적이었다. 이 곡의 연주에서 세종솔로이스츠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의 체임버 오케스트라임이 증명됐다. 이렇게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뮤지션들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갖는데 가능케 한 신한은행에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Robert Matthew-Walker

## SEJONG RETROUVE PARIS

Salle Gaveau, Paris  
8 juin 2007

Dix-huit mois après le programme Britten, Penderecki, Schubert (Mahler) qu'il donnait à la Salle Cortot [lire [notre chronique](#) du 3 novembre 2005], l'ensemble New-Yorkais **Sejong** retrouve Paris dans un tout autre menu. Ses jeunes artistes, sonnante tous des instruments de rêve - Minozzi, Guadagnini, Bergonzi, Gagliano, Stradivarius et Guarneri, excusez du peu ! -, faisaient offrande au printemps de la première partie du concert. Tout d'abord avec *Las cuatro estaciones porteñas*, initialement écrites pour bandonéon, contrebasse, piano, violon et guitare, par **Astor Piazzolla** entre 1965 et 1970, puis ingénieusement adaptées pour violon solo et orchestre à cordes il y a une dizaine d'années, par **Leonid Desiatnikov** - compositeur ukrainien né en 1955, vivant aujourd'hui en Russie, auteur de plusieurs opéras et de nombreuses musiques de films.

L'option de cette exécution sera de faire succéder quatre solistes au fil des *saisons*, chacun s'illustrant du mieux possible à rendre compte de la vision ponctuelle de l'Argentin. C'est **Frank Huang** qui ouvre un *Printemps* dévorant et nerveux, impatient, en quelque sorte, accompagné par un *tutti* un rien maigrelet, malgré la remarquable assise de la contrebasse - **Rachel Calin**. L'*Eté* de **Ji In Yang** ne surélève pas les clins d'œil motiviques à Vivaldi, dans une approche soignée qui, dans l'ensemble, manque cependant d'énergie et d'engagement ; de fait, il semblerait que cette musique se passe difficilement d'un chef. Les abords rugueux de l'*Automne* trouvent en **Emilie-Anne Gendron** la dispensatrice d'une sonorité qui va se réchauffant, dans une belle couleur. Enfin, avec une sonorité moins épaisse mais un indéniable sens de la nuance, **Yura Lee** offre un hiver *doloroso* très gracieusement âpre.

Commandé par le Great Mountain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qui a lieu en Corée du Sud, dans la province de Gangwon, *Les Quatre Saisons de PyeongChang* (dédié à cette ville de la région) de **Sukhi Kang** - compositeur né à Séoul en 1934 - comprend huit brefs mouvements, donnés ici en création européenne. On y remarque particulièrement l'excellente intervention soliste de **Stefan Milenkovich** dont la palette dynamique fait florès de cette partition hybride. Pourquoi *hybride* ? Parce que cette œuvre semble avoir absorbé plusieurs esthétiques dont le XXème siècle fut traversé, marquant un goût personnel tant pour la seconde école viennoise ou l'emploi d'*ostinati* centre-européens que pour des répétitions reichiennes transcendées par un lyrisme qui rappellera peut-être certaines pages de Takemitsu. C'est, indéniablement, bien *ficelé*, mais on se demande tout de même où se trouve l'auteur dans tout cela.

C'est après l'entracte que survient le meilleur moment de ce rendez-vous avec Sejong : la *Sérénade Op.48* de **Tchaïkovski**. Le 1er mouvement nous fait goûter une pâte générale fort généreuse, tandis que la fin de la *Valse* du second se fait des plus élégantes. L'*Élégie* bénéficie d'un bel équilibre, maintenant délicatement la nuance globale dans une articulation fluide, que la savante demi-teinte ouvrant le *Finale* magnifiera d'autant plus.

Bertrand Bolognesi

## 아나콜라즈 6/8/07 살 가보

프랑스의 살 코토에서 브리튼, 펜데레키,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한지 18 개월만에 뉴욕에 본거지를 둔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파리에 돌아왔다.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세종은 이번 공연에 미노치, 과다니니, 베르곤치, 갈리아노, 스트라디바리우스, 파르네리 등의 꿈의 명기로 ‘봄’을 연주하며 콘서트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곡은 피아졸라가 1965 년과 1970 년에 걸쳐 원래 반도네온, 더블베이스, 피아노, 바이올린과 기타 편성으로 작곡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로, 오늘 콘서트에서는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가 독창적으로 십여 년 전 바이올린 독주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한 곡을 연주하였다 (데샤트니코프는 1955 년 우크라이나 생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편의 오페라와 영화음악을 작곡하였다).

피아졸라의 <사계>는 세종솔로이스츠 단원 네 명이 각각 계절별 독주 협연자로 나서 서로 다른 음색으로 아르헨티나 사계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였다. 바이올리니스트 프랭크 황이 열정적이면서도 급박하고 약간은 신경질적인 색채로 ‘봄’을 연주하는 가운데 레이첼 칼린이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가 때때로 투티를 동반하였다. 더블베이스가 단 한대임에도 불구하고 음향은 풍부하고 알찼다. 양지인이 연주한 ‘여름’은 산뜻했으나 에너지와 몰입이 부족해 비발디에서 비롯된 악상이 다소 흐릿하게 그려졌다. 이 곡은 지휘자가 없이는 깔끔하게 연주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따뜻함과 아름다운 음색을 갖춘 에밀리 앤 젠드론의 연주는 ‘가을’의 거친 스타일에 잘 어울렸다. 마지막으로 이유라는 풍부한 음색은 아니었으나 부정할 수 없는 표현력으로 우아하면서도 신랄한 겨울을 표현하였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위촉한 <평창의 사계>가 유럽에서 초연되었다. 이 곡은 1934 년 서울 출생인 작곡가 강석희의 작품으로, 총 8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곡의 독주 협연자였던 스테판 밀렌코비치는 혼성적인 작품에 다이내믹함과 색채감을 부여했다. ‘혼성적인 작품’이라 부른 이유는 이 곡이 20 세기의 다양한 음악 사조를 한데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풍의 반복을 보여주는 제 2 빈 악파 혹은 중부 유럽적인 오스티나토(일정 음형을 동일 성부로 반복하는 것 - 윽긴이)에 타케미즈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서정성이 가미된 양상이다.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작곡가만의 독자적인 어법은 어디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날 공연에서 최상의 순간은 인터미션 후에 연주된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 C 장조>였다. 풍부한 1 악장에 이은 2 악장 왈츠의 마지막은 우아하게 마무리되었다. 악장 ‘비가’는 유려하고도 명확한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섬세한 분위기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밸런스로 연주되었고, 이는 피날레 첫머리에서 깊이 있게 울리는 반음계를 더욱 멋지게 들리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 한겨레

2005년 8월11일 목요일

## 생산적 충돌로 빛은 '최고의 앙상블' 10년

세종솔로이스츠 10돌 눈앞  
DMZ서 '깨어남' 세계 초연  
"음악의 역할 새삼 느껴"  
레퍼토리 더 넓히고  
큰 현대실내악 연주 계획

미국 클래식 음악계로부터 '최고의 현악실내악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가 오는 12월이면 창단 10돌을 맞는다.

1995년 플리어드 음악원 강호 교수가 같은 음악원 출신이 많은 한국인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다국적의 젊은 솔로리스트들을 모아 창단한 세종솔로이스츠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사운드》 등 수많은 세계 언론으로부터 "지워져 않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대한민국계음악제에서 상주연주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의 단원들을 지난 6월 동경 리츠르의 르세스홀에서 만났다. 이들은 지난 3일 강원도 횡성군 노동당사 앞에서 열린 '다문화 평화-생명 콘서트'와 3일 개악 연주회에서 세계적인 작곡가 베카르 칸스아인(올라비도 솔라비) 교수가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호 예술감독의 제의를 받아 작곡한 《깨어남》을 세계 초연에 국내의 청중들에게 같은 감명을 심었다.

"대한민국계음악제의 주제인 '전쟁과 평화'의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창작곡을 초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세대지만 한국 전쟁의 비극이 담긴 장소에서 그런 의미있는 작품을 연주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인상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강호 교수의 제자로서 창단 멤버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유정씨도 2000년부터 참가하고 있는 이세영(바이올린)씨는 "전쟁의 여파를 국민마다 연습시간이 짧아서 걱정했는데 콘서트한 교수와 청중들이 대단히 좋아해서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며 "창단 10주년을 맞아 뜻깊은 선물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수로 무소시대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중국, 대만, 독일, 캐나다, 벨기에의 등 9개국 출신의 다국적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실내악단인 세종솔로이스츠가 창단 10돌을 맞는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제공)

2002년부터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넬리우스 드팔트(미국·뉴욕 주립대 부교수)는 "지난해부터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올해 다문화 콘서트에 참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좋은 음악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고, 이를 다룰 줄 알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첼리스트 올라비도 솔라비에게달라 송대 에이 학교 교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프랑크 할 등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의 단원 14명 개개인이 경력과 개성이 화려한 솔로리스트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실내악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흥취로운 일이 아니냐"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실제로 세종솔로이스츠는 창단 초기부터 빈, 엘리자베스, 파가니니, 보스보르프 비지 콩무르 등 세계적인 명수로 무소가 많이 참여했고, 1997년부터 이스트 음악제와 샬럿 실내악단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권위를 찾았다. 또 2002년 빌드업에서는 204개국 회원들이 모인 국제음악연

(회) 총회 특별연주를 했으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성화봉송 뉴욕행사에서 유엔 초청으로 유엔에서 공연하는 연주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유정씨는 "창단 때부터 강 교수는 반드시 한국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세종이라는 이름도 세종대왕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인 인물인데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편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휘자 없이 개개인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화음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창단 과정을 털어놓았다. 드팔트는 "무엇보다 동료들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며 "가장 있는 줄들은 자연스럽게 생선적인 일이다. 서로 의견을 다른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거듭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세종솔로이스츠가 '소규모 현악4중주' 연주만을 목표로 삼지않고 대규모 연주하면서도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소리를 내는 실내악단이라는 평가에 어긋나지 않는 연주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즉각 "앞으로는 레퍼토리를

더 넓히고 큰 현대실내악을 많이 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월에 바이올리니스트 초창인과의 리얼리티 '세계' 협연을 올연으로 녹음하고, 10월에는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창단 10년 기념 연주회에 이어, 11월에는 피아노 연인 순화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한국 관객들의 많은 후원을 늘고 싶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없으면 우리는 연주를 할 수 없어요."(드팔트) "한국에 오면 이름이 세종이어서 그런지 반대해 주고 외국인 멤버들도 기분 좋게하는 곳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이세영) "우리 멤버들은 이제 한국에서 시간을 가지고 배우면서 익히는 우리 팀을 꿈꿨어요. 그런 것이 문화사업의 역할이죠."(이유정)

세종솔로이스츠는 고양문화재단으로부터 '세계무대의 한국 음악인연'에 초청받아 오는 25일 저녁 7시30분 경기도 고양 덕양예술영우극 예술극장에서 10주년 기념 《사계》로 한국 청중들을 다시 만난다.

한겨레신문 기자 chungh@han.com



New York

# 중앙일보

2004년 6월22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제12079호

구독·제보(718)361-7700 1



**세종솔로이스츠, 유엔본부 공연** 세종솔로이스츠가 유엔본부 앞에서 19일 아테네 올림픽 성  
회봉송 뉴욕 행사를 축하하는 연주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유엔본부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  
에서 세종솔로이스츠는 그리그의 '홀버그 모음곡'과 피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연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마이크 볼튼버그 뉴욕시장 등 60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세종솔로이스츠 CNN 27일 출연 '폴라 잔 나우' 서 비발디 등 연주

인하내셔널 세종솔로이스츠가 27일 추수감사절 CNN의 '폴라 잔 나우'(Paula Zaba Now) 프로그램에서 방영될 연주곡목을 19일 발표했다.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는 27일 오후 8~9시 30분어간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세종이 연주하게 될 곡목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G단조'.

세종솔로이스츠의 김효 감독은 "민국의 명품인 '악사'와 비

슷한 '추수감사절' 축제, 세종의 연주가 대국적 기쁨에 울려 퍼지게 될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폴라 잔 나우' 프로그램이 영커우인 폴라 잔안 대학에서 자선공연과 첼로홀 헌정행 차원으로 그동안 폴리스코 요모야와 뉴욕 필스 오케스트라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CNN 방송의 간판 스타인 그네는 그동안 빌 클린턴, 지미 카이 전 미 대통령을 비롯 미국

일 고전마르프, 보리스 엘친 러시아 전 대통령 등을 인터뷰하는 등 시사 뉴스 진행을 맡아왔다.

한편 세종솔로이스츠는 지난 9월 뉴욕 리스토리얼 소사이어티 강당에서 김성훈 주 유엔대사관 사절 초청, 10여개국의 주유엔대사와 연성신영의원 첼리스트를 초청한 '외동양 불사' 공연을, CNN 강부지음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으로 연주회를 가졌었다. **김은숙 기자**



세종솔로이스츠가 27일 CNN 방송에 출연, 연주한다. CNN 방송사 곳곳에는 세종이 연주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나뉘어 있다. 사진은 세종 단원들이 폴라 잔과 함께 찍은 포스터.

## 커뮤니티 동정

2003년 3월 10일 (월요일)

지구촌 곳곳 초청 연주  
세계 최정상 악단 세종솔로이스츠

카카오 페스티벌에 참가한 후 공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

세계 최정상을 넘어서는 세  
종솔로이스츠(이하 세종)는  
14일 카카오페스티벌에서  
세계 최대 공연 초청 공연을  
시작한다.

조선의 삼국 시대부터 이  
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퍼  
져나간 카카오페스티벌  
14일에서 시작하여 카카오페  
스티벌이 인종차별 없는 세

상으로 1997년 2월  
까지 14일 동안 공연을  
진행한다.

대한 공연단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카카오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카카오페스티벌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연주회를  
진행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제 14일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에 퍼지는 음악의 기쁨

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  
고 세계 각국에 퍼지는 음악의  
기쁨을 소개, 세종이 음악의 기쁨  
을 소개하는 공연을 기대했다.

공연에는 국제교류재단이 후원  
하는 초청 악단으로 세종솔로이스츠  
에서 한국 최대 규모의 7월 21일  
부터 24일 세종이 음악의 기쁨을  
소개하는 공연을 기대했다.

한편 세종은 카카오페스티벌 K25  
TV의 연인과 비보리를 통해 연주  
할 예정이다.

이제 14일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에 퍼지는 음악의 기쁨을  
소개하는 공연을 기대했다.

김민희 기자

kimminhi@kbs.com

# 朝鮮日報

2003년 3월 27일 목요일

## 정교한 앙상블에 숨소리조차 멋어

리뷰 세종솔로이스츠·초령인·김 사영 협연

고급 한 세대의 연주 콘서트와 유사해 들은 단상, 아예도 숨을 제대로 쉴지 못했다. 정교한 앙상블이다. 아예도, 단상, 세종솔로이스츠와 초령인·김 사영(바이올린)이 협연한 대륙 '3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그 나뭇잎 두 번째 악장이라고 하는 원모(원현) 열사에게 소리가 울릴까봐 정조적 제대로 들리지 못했다. 것이다. 초령인과 김 사영이 아담 한사(바이올린) 리처드 클레 오닐(비올라) 등과 함께 한 앙상블은 '반의 8중주'는 또 어떨까. 아예도, 단상, 두 번째 악장 '앙상블'에서 숨을 쉰다. 고르지 않은 숨을 쉰다. 배색은 뛰었다. 것이다.

### 강효 교수의 명성 브러쉬

세종솔로이스츠의 이날 내한연수회는 김효(총주·56) 교수의 뉴욕 클리브랜드 재직 20주년을 기념해 초빙한 무대였다. 한 교수의 대박(그것도 볼 건너 남의 내한) 재

회 20년이 도대체 어떤 50대를 갖기에, 한 소 독주회로도 만나보기 힘든 초령인·김 사영 두 수비스타가 '세종'과 함께 한 무대에 올랐을까. 김효는 도이치그라오편 레코딩사의 간판 연주자 사명을 비롯해서 강영주·김지연·캐서린조·이유리 등을 끌어들였다. 훌륭한 현악 스타를 끌어들인 '명물(명물) 대담관' 끌어들여도 명교수로 소문난 김효의 관습에서 나온 연주자들은 지금 무려 시대 세계무대서 김효사단을 이루고 있다. 김효는 아담 한사(비올라)를 비롯해서 이들 연주자들을 모아 뉴욕에서 세종솔로이스츠를 창단했다.

'세종'은 어닝 그라그 '클레프의 모음곡', 비츠 '보완(부르)의 협주곡 2번' 등을 연주했다. 김효의 클리브랜드 동료 교수이기도 한 초령인과 사영이 '세종'과 함께 한 비츠 협주곡, 초령인과 사영이 주머니 왕 건너 남을 처음으로 총총히 뛰어난 음악은 변명(명물)의 사였다.